



계획도시 장항의 기록



기록하기

장항의 대표적인 장소를
선택해보세요



◀ 뒤로가기

장항역의 역사

장항역은 1931년 장항선이 개통되면서 문을 열었지만, 본격적으로 발전한 시기는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입니다. 당시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를 복구하기 위해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는데, 특히 장항제련소가 역 근처에 자리 잡으면서 장항역이 중요한 물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광물 자원을 수입하던 장항항에서 들여온 구리, 아연, 연 등의 금속 원료가 장항역을 통해 전국 각지로 실려 나갔습니다. 화물열차 전용 선로가 따로 있어 하루 종일 광물과 석탄을 실은 화물열차가 오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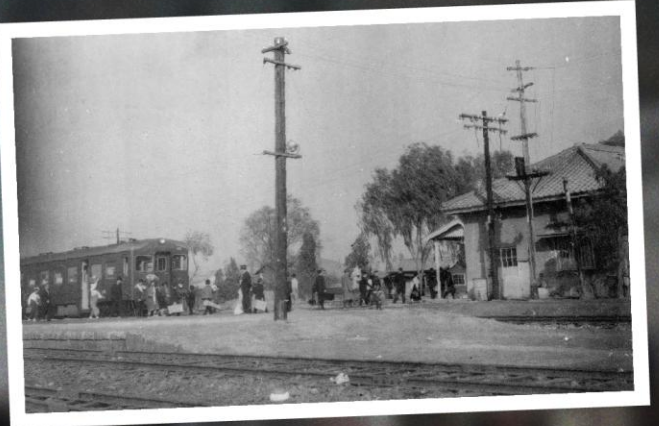
1970년대에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철도가 산업과 생활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장항역은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오가는 바쁜 역이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완행열차를 타고 서울이나 대전, 군산 같은 도시로 이동하곤 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동차와 고속도로가 발달하자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장항제련소의 생산량도 예전만큼 많지 않게 되면서, 장항역의 화물 수송 역할은 서서히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객 운송은 꾸준히 유지됐고, 지역 주민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2008년 1월 1일에 장항선 직선화 사업 개통과 함께 역의 위치가 장항읍에서 마서면으로 이전되었으나, 역명은 그대로 장항역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

마음에 드는 장항역의 사진을
선택해보세요



전송하기